

## 11강 십신론 II

若以木爲官主品秩清高和俗守慎遇行年太歲在未爲官庫.

以火爲官主官序炎赫爲性猛烈用刑慘酷亦主發歇不常遇行年太歲在戌爲官庫

以水爲官主職卑位下級昇序進謙和得衆矜恤孤寡亦有道性遇行年太歲在辰爲官庫

以土爲官主官序穩當難侵犯厚重質直法令分明遇行年太歲在辰爲官庫

凡五行之官各隨其性則吉若失其性則主爲官不久

만약 목이 관이 되면 당사자는 품계가 청고하고 풍속과 어울려 삼가하여 지키니 행년이나 태세에서 미(未)를 만나면 관고(官庫)가 된다.

화가 관이 되면 당사자는 벼슬을 안정시켜 아름답게 빛나며, 성질은 맹렬하여 형벌권을 가지고 참혹한 일을 하게 되니,

역시 당사자는 발전이 끊이지 않으며 행년이나 태세에서 술(戌)이 있음을 만나면 관고(官庫)가 된다.

수가 관이 되면 당사자는 직책이 낮고 하급직위를 가지는데 등급은 오르고 직위는 나아가니 겸손과 화합함으로 백성의 인망을 얻고, 고아와 과부를 가엾게 여겨 도우며, 또한 도리를 아는 성품이 있으니 행년과 태세에서 진(辰)이 있음을 만나면 관고(官庫)가 된다.

토가 관이 되면 당사자는 벼슬이 안정됨이 온당하여 어려움이 침범치 아니하고,

바탕이 곧아서 너그럽고 관대하여 법령이 분명하니 행년이나 태세에서 진(辰)이 있음을 만나면 관고(官庫)가 된다.

무릇 오행의 관은 각자의 성질을 따르는 것이 길하며 만약 그 성질을 잃어버리면 곧 당사자는 벼슬이 오래지 아니하게 된다.

萬祺賦》云：官星榮者榮身之主掌祿之源

逢財則從容顯達遇刃則偃蹇伶仃 喜印綬以爲順意忌偏黨以爲傷神

所以功名特達者身強官旺 利祿虧盈者身弱官衰身旺官微財名寡合

傷官若重再喜印滋身輕忌曜如強偏愛印綬生制

『만기부(萬祺賦)』에 이르기를, “관성이 영화로우면 영신을 좌우하는 주인이 녹(祿)의 근원을 장악한 것이다. 재성을 만난 즉 조용히 현달하지만 양인(陽刃)을 만난 즉 거드름을 피우며 거만을 떨다가 의지할 곳이 없어지고, 인수의 순의(順意)를 기뻐하고 편당(偏黨)으로 인해 상신(傷身)하는 것을 꺼린다.

공명이 특달한 까닭은 신강하고 관성이 왕한 때문이며, 이록(利祿)이 모자라거나 가득한 것은 신약하고 관성이 쇠한 때문이니, 신왕하고 관성이 미약한 것은 재명(財名)이 약한 것을 만난 것이며, 상관(上管)이 만약 중하면 다시 인성의 많음을 기뻐하고 일주가 가벼우면 당연히 강한 오행을 꺼리며, 인수가 생조하고 제어함을 편애한다.”라고 하였다.

## 11강 십신론 II

又印多官多爲貴命官旺身衰反爲病，官多身旺化爲財財旺身衰貧病併  
又：正官大抵要純和四柱無傷掇顯科 時上喜逢財健旺柱中欣見印生多  
提綱獨遇爲真貴年位重逢乃太多 別處若有煞來混反爲辛苦受奔波  
合諸說觀正官喜忌見矣.

또, “인수도 많고 관성도 많으면 귀명이 되고 관왕한테 신쇠하면 반대로 병이 되며,  
관성이 많은데 신왕하면 재물로 화(化)하고, 재성이 왕한테 신쇠하면 가난과 질병이 나란히 온다.”고 하였다.

또, “정관은 대체로 순화(純和)해야 하는데 사주에 상(傷)함이 없다면 등과하여 현달하고,  
시상(時上)에서 재성의 건왕함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데 주중에서 인성의 생(生)함이 많음을 보는 것을 기뻐한다.

제강이 홀로 진귀함을 만나는데 년위(年位)에 거듭 만나면 또한 태다(太多)한 것이며  
다른 곳에서 만약 칠살이 와서 혼잡함이 있게 된다면 반대로 신고(辛苦)하고 분파(奔波)를 받는다.”고 하였다.

여러 사람의 학설을 종합하여 정관을 관찰하면 희기가 드러나리라.

# 명리 고전 하이라이트 강독 I

12강 십신론 III

李虛中命書  
子平粹言



## 〈淵海子平〉 論偏官

卽七殺 夫偏官者 蓋甲木見庚金之類 陽見陽 陰見陰 乃謂之偏官  
不成配偶猶 如經言二女不能同居 二男不可並處是也

즉 칠살이다. 대저 편관은 갑목이 경금을 보는 것과 같다.  
양이 양을 보고 음이 음을 보는 것을 편관이라 말하며 짝을 이루지 않는다.  
경에 말하기를,  
“두 여자가 같이 살 수 없고 두 남자가 함께 거처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였다.

小人者 狙詐也 要控御得其道矣 一失控御 小人得權 則禍立見矣

經曰 人有偏官 如抱虎而眠 雖借其威

足以攝羣畜 稍失關防 必爲其噬臍 不可不慮也

소인은 교활하게 속이므로 제어하는 방법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제어하지 못하고 소인이 권력을 얻으면 바로 재앙을 보게 된다.

경에 이르기를, “사람이 편관을 가지면 호랑이를 품고 자는 것과 같다.

비록 그 위엄을 빌려 충분히 가축들을 다스릴 수 있지만 잠시라도 관망을 잃는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므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하였다.

如遇三刑俱全 羊刃在日及時 又有六害 復遇魁罡相沖 如是人之凶不可具術

만약 삼형을 모두 갖추고 양인이 일과 시에 있으며 또한 육해가 있고  
다시 괴강이 상충하면 어찌 그 사람의 흉을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制伏得位 運復經行制伏之鄉 此大貴之命也  
苟於前者 凶神俱聚 運遊煞旺之鄉 凶害有不可言者可知也

제복함이 힘을 얻고 운이 다시 제복 향으로 행하면 대귀한 명이다.

만일 전자와 같이 흉신이 모두 모이고 운이 살이  
왕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흉하고 해로움을 말하지 않아도 가히 알 수 있다.

如有一煞 而制伏有二三 復行制伏之運 反不作福  
要須輕重得所 不可太甚 亦不可不及 須仔細審詳而言 則禍福如影響矣

만약 하나의 살이 있고 제복이 둘 셋이 있는데  
다시 제복 운으로 행하면 도리어 복이 되지 않는다.  
모름지기 경중을 얻음에 크게 지나치지 않으며 또한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반드시 자세히 살피고 헤아려서 말하면  
재화와 복록이 그림자와 같고 메아리와 같음을 알 수 있다.

又云 有制伏則爲偏官 無制復則爲七殺

譬諸小人 御之得其道則可使 失其道則 難敵 在吾控御之道何如耳

또한 말하기를

“제복이 있으면 편관이 되고 제복이 없으면 칠살이 된다.”고 하였다.

비유컨대 소인일지라도 도리를 얻으면 부릴 수 있고

도리를 잃으면 대적하기 어려운데 제어하는 도리가 나에게 있는 것을 어찌 하겠는가?

## 12강 십신론 III

大抵傷官七煞 最喜身旺 有制伏爲妙 元有制伏 可行殺旺之方 元無制伏 可行制伏之運 身旺化之 得爲偏官 身弱無制伏 則爲七煞 制伏復行制伏運 謂之太過 則爲偏官無餘燼矣 月中之氣 怕冲與羊刃 其本身弱 若殺強則難制 如身強殺淺 則是假殺爲權刃 如曰七殺不怕刑冲 宜詳之

대저 상관과 칠살은 신왕을 가장 좋아하고 제복이 있으면 기묘하게 된다.

원래 제복이 있으면 칠살이 왕한 방으로 행하면 좋고

제복이 없으면 제복하는 운으로 행하면 좋다.

신왕하면 칠살이 화하여 편관이 되며 신약하고 제복하지 못하면 칠살이 된다.

제복하는데 다시 제복 운으로 행하면 태과하다고 말하니 편관은 불타 없어지고 만다.

月中之氣 怕冲與羊刃 其本身弱 若殺強則難制 如身強殺淺  
則是假殺爲權刃 如日七殺不怕刑冲 宜詳之

월중의 기가 충과 더불어 양인을 두려워하는 것은 본신이 약하기 때문이며  
만약 살이 강하면 제복하기 어려우나  
본신이 강하고 살이 약하면 살을 빌려 권력의 칼을 삼는다.  
또한 칠살은 형충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마땅히 자세히 살피야 한다.

## 〈淵海子平〉 論印綬

所謂印生我者卽印綬也 經曰有官無印卽非眞官 有印無官反成其福  
何以言之 大抵人生得物以相助相生相養 使我得萬物之見成豈不妙乎  
故主人多智慮兼豐厚

이른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를 생하는 것으로 곧 인수를 말한다.  
經에 이르길 관성은 있는데 인성이 없다면 그 官은 참되지 못하고, 인성은 있는데  
관성이 없다면 오히려 그 복을 이룬다고 하였다. 어찌하여 이렇게 말했는가?  
대저 인생이란 재리와 이득으로서 서로 돕고 서로 생하며 서로 기르는 것이니  
내가 얻음으로서 만물의 이루어짐 또한 나타나게 되니 어찌 묘하지 아니한가?  
그러므로 그 주인공은 지혜와 계략이 많고 겸하여 풍후함이 있는 것이다.

蓋印綬畏財主人括囊 故四柱中及運行官貴反成其福 蓋官鬼能生我只畏其財  
而財能反傷我 此印綬之妙者 多是受父母之陰 承父之資財 見成安享之人

대개 인성은 재성을 두려워하는 것이니 주인의 주머니를 묶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주 내에서나 운의 흐름이 官貴(정관)에 이르는 것이 오히려 그 복을 이룬다.

대개 官鬼(관살)는 나(인수)를 생할 수는 있다.

다만 재를 두려워하는 것은 재가 오히려 나(인수)를 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인성의 묘한 것은 부모의 음덕을 많이 받고  
부친의 자산을 이어 받아서 안정과 여유로움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最怕行印綬死絕之運 或運臨死絕 復有物以竊之 卽入黃泉無可疑也

喜官星生印 忌財旺破印 如甲人生亥子月中 水爲印 忌火傷官 忌土破印

要行生旺之鄉 怕行死絕 若行死絕之地 或有物以傷之則危矣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인성이 死絶의 運으로 향하는 것이니

혹 運에서 死絶에 임하고 다시 재성으로 인성을 흠친다면 곧 황천길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관성이 인성을 생하는 것은 기뻐하나, 왕한 재성이 인성을 파극하는 것은 꺼린다.

만약 甲일주가 亥子月中에 태어났다면 水는 인성이 되니 火傷官을 꺼리고 土財가 破印하는 것을 꺼리므로 중요한 것은 生旺의 鄉으로 행해야 하며, 死絶地로 향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만약 死絶地로 향하거나 혹은 재성으로써 인성을 상해한다면 그 또한 위험한 것이다.

如帶印綬須帶官星 謂之官印兩全必爲貴命 若官星雖見成得父母力  
爲福亦厚也 須行官星運便發 或行印綬運亦發

만약 인성을 띠고 모름지기 관성을 띠다면  
이를 관인양전(官印兩全 혹은 官印雙全)이라 하니 필시 귀명이다.

만약 관성이 비록 이미 갖추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힘을 얻는 것이니 또한 복이 두터운 것이다.

모름지기 관성운으로 향해야 다시 발복하고 혹은 인성운으로 향하는 것 역시 발복한다.

## 〈淵海子平〉 論正財

大抵正財吾妻之財也 人之女贅財以事我 必精神康強 然後可以享用之  
故財要得時不要財多 若財多則自家日本有力 可以勝任當化作官

대체로 정재는 내 아내의 재물이다.

다른 이의 여식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를 섬기기 때문에 그러하다.

반드시 사주의 정신이 평안하고 강건해야 재를 향유하면 쓸 수 있다.

따라서 재라는 것은 (하나만 있어도) 때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 많이 있을 필요가 없다.

재가 많으면 일주가 강해야 그를 이겨 감당할 수 있고 나아가 관성으로 화할 수 있다.

天元一氣羸弱貧薄難治 是樂於身旺 不要行剋制之鄉 剋制者官鬼也  
又怕所生之月令 正吾衰病之地 又四柱無父母以生之  
反喜財又有見財謂之財多 力不任財禍患百出

일주가 약하면 가난하고 박복함을 통제하기 어려우니  
신왕함을 기뻐하고 극제하는 곳(관귀)으로 흘러가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월령이 일주의 쇠병지가 됨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

또한 사주 내에 인성이 없는데 재가 많은 경우 이를 ‘재다’라고 하여 반기지 않는다.  
즉 일주가 재성을 감당하기 역부족이라 재앙과 우환이 수없이 발생하게 된다.

若或四柱相生 別帶貴格 不值空亡 又行旺運 三合財生 是皆貴命 其餘福之淺深 皆隨入格輕重而言 又雲正財者 喜身旺印綬忌官星忌倒食忌身弱比肩劫財 不可見官星 恐盜財之氣也 喜印綬者能生身主弱故也

만약 사주가 상생하고 귀격이 추가로 있으며 공망됨은 없고  
운로가 재를 삼합으로 생하여 왕성한 운로로 흐르면 모두 귀명이 된다.  
또 말하길 정재는 신왕하고 인수가 있음을 기뻐하고 설기하는 관을 꺼리며  
도식(편인)을 꺼리고 신약함도 꺼려하며 비겁도 꺼리니  
재의 기운을 빼앗아감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大抵財不論偏正 皆喜印綬必能發福

대저 재성은 편과 정을 논하지 않는데  
둘 다 인수가 있음을 기뻐함은 반드시 발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丁 丁 丁 辛  
未 巳 酉 丑

此命丁日身坐財之地 又見巳酉醜金局故主財旺  
蓋金得木庫居未能生丁火 故身旺能當其財  
運行東南方宜乎巨富 凡用財不見官星為妙

이 명조는 정화 일간이 일지 지장간에 재성을 만나고 금국을 이루므로 재왕하고 미시를 얻어 신왕하므로 능히 그 재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운까지 동남방으로 흘러 큰 부자가 되었다.  
대개 재를 쓸 때는 사주내에 관이 없어도 묘하게 발복한다.

凡傷官見財格 忌見官星只喜見財

일반적으로 상관견재격은 관이 나타남은 꺼리고 단지 재성만을 기뻐한다.

## 〈淵海子平〉 論偏財

然而偏財者乃眾人之財也 只恐兄弟姊妹有奪之 則福不全 若有官星禍患百出  
故曰：偏財好出亦不懼藏 惟怕有以分奪反空亡耳 有一於此官將不成財將不住

편재는 못사람의 재물이다.

단지 사주 내에 형제자매가 이를 빼앗아가면 복이 온전치 못하다.

만약 신약재왕한테 관성이 있으면 재앙과 우환이 수없이 발생한다.

따라서 편재는 천간에 투출되어 튼튼함을 좋아하지만 지장간에 감춰짐도 두려워 않는다.

오직 분탈됨을 두려워하고 공망을 꺼릴 뿐이다.

이런 것이 하나만 있어도 재생관이 안될뿐더러 재가 머물지도 못한다.

偏財主人慷慨不甚吝財 惟是得地不止 財豐亦能官旺 何以言之 蓋財盛自生官  
矣，但為人有情而多詐 蓋財能利己亦能招謗

편재가 있는 사람은 강개함이 있고 재물에 인색하지 않다.  
편재가 득지하여 강왕하면 재화의 풍성함이 그치지 않는다.  
또한 관성까지 왕성하게 하니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대개 재성이 왕하면 관을 생하기 때문이다.

단지 편재가 있으면 사람됨이 정이 많으면서도 속임이 많은데  
이는 대체로 재가 자신을 이롭게 만들지만 동시에 타인들의 비방을 초래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 〈淵海子平〉 論食神

命中帶此者 主人財厚食豐 腹量寬洪 肌體肥大 優遊自足 有子息有壽考

恒不喜見官星 忌倒食恐傷其食神

喜財神相生 獨一位見之則為福人 然終亦不清 卻喜身旺

명중에 식신이 있는 사람은 재복이 두텁고 식욕이 풍부하며

속마음의 국량이 매우 관대하고 넓을 뿐만 아니라

몸의 살이 비대하고 여유롭고 한가하며 스스로 만족하며 살고 자식들이 있고 수명이 길다.

항상 관성의 출현을 기뻐하지 않거나 도식의 존재를 꺼림은 식신이 훼손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성이 있어 상생함을 기뻐하니 사주에 제성이 한 개만 있으면 복된 자다.

그러나 식신은 결코 청귀한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신왕함을 기뻐한다.

12강 십신론 III

辛 丁 己 己  
丑 未 巳 未

乙 癸 乙 乙  
卯 酉 酉 巳

## 〈淵海子平〉 論倒食

夫倒食者 沖財神之謂也 一名「吞啗煞」 用財神大忌見之 用食神亦忌見之  
凡命中帶此二者 主福淺壽薄 作事進退悔懶 有始無終 財源屢成屢敗

容貌敲斜 身品矮小 膽怯心慌 凡事無成也

도식 편인은 재성과 충하는 오행을 말하며 일명 탄담살이라고 하니  
재성을 끄는 사주와 식신을 쓰는 사주에서 특히 꺼린다.

대체로 명중에 식신과 같이 있으면 복이 얇고 수명도 짧게 된다.

따라서 매사에 진퇴의 때를 잘 결정하지 못하고 일처리에 게으름과 나태로 일관하여  
결국 후회하게 되며 시작은 잘하지만 끝을 맺지 못하고 재원을 성공적으로 모았다가  
다 날리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며 용모가 선후천적인 기형으로 일그러지게 되고  
몸의 품격은 왜소하며 담이 약해 겁이 많고 마음은 촉급하니 모든 일에 성취가 없다.

## 〈淵海子平〉 論劫財

亦名「逆刃」 財者人之所欲 方令弟兄見之 多有爭競如夷 齊能幾人  
男命見劫財多剋妻 女命見傷官多剋夫 此極論也

다른 명칭은 ‘역인’이다.

재물은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것이니 형과 동생이 동시에 재물을 보면 서로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백이 숙제 같은 부귀공명에 초탈한 이들이 몇이나 되겠는가?

남자의 명에 겁재가 있으면 그 아내를 극해하는 일이 많고 여명에 상관(傷官)이 있으면 그 남편을 극해하는 일이 많으니 이는 지극히 맞는 말이다.